

20세기 어느 유학자의 생애와 편찬 활동 -송석(松石) 이병연(李秉延)을 중심으로-*

김건우**

〈차 례〉

1. 머리말
2. 생애와 현실인식
3. 『조선환여승람』 편찬과정
4. 선조(先祖) 현양과 문헌 편찬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20세기를 살다간 충남 공주의 유학자인 송석 이병연(1894~1977)의 생애와 편찬 활동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129개 군의 방대한 인문지리서인 『조선환여승람』을 편찬한 이병연에 대한 기본적인 생애 정보조차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병연은 가난한 삶 속에서 19세 때부터 부친 이원과 숙부 이석이 주관하는 문헌편찬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았다. 『조선환여승람』의 특징인 전국적 규모이면서 군별(郡別) 책자 방식, 방대한 인물 정보를 수록했던 비결은 바로 부친과 숙부의 간행을 조력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병연은 40대 이후 『조선환여승람』의 상업적 성공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선조(先祖) 관련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편찬 간행함으로써 선조의 위상을 높이고 친족의 결속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근현대 인쇄술의 발달은 대량의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면서 새로운 사상과 인식을 형성해 갔다. 아울러 족보·문집 등과 같은 유교 문헌 역시 새로운 인쇄기술과 결합되면서 대폭 확장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를 살았던 유학자 이병연의 삶과 편찬활동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제어] 李秉延, 조선환여승람, 편찬 활동, 유학자, 선조 현양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kunwoo629@hanmail.net

1. 머리말

본고는 충남 공주의 유학자인 송석 이병연(1894~1977)의 생애와 편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29개 군(郡)의 방대한 『조선환여승람』의 편찬과정, 서지적 사항, 이병연의 생애와 『조선환여승람』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점이 많다. 현재 『조선환여승람』에 대해서 학계에 논문 1건이 제출되었고, 저서 1종에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¹⁾ 더욱이 『조선환여승람』 편찬을 주도한 송석 이병연에 대해서는 전혀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다.

20세기 들어와 유교의 위상과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역사적 시련과 충격을 겪으며 살았던 근현대 유학자의 삶과 활동을 추적하여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 모습을 이해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 20세기를 살다간 유학자들에게 당대 사회적 분위기는 위기의 시대로 여겨 유교문헌 편찬, 족보 발간, 강학(講學) 활동, 선조 현양, 유적 보존 등 여러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주지하듯이 근현대 인쇄술의 발달은 대량의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면서 새로운 사상과 인식을 형성해 갔다. 아울러 족보, 문집 등과 같은 유교문화 역시 근현대 새로운 인쇄기술을 결합되면서 확장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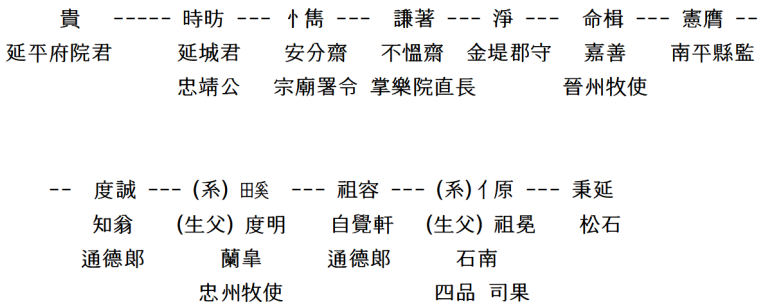
본고는 「송석거사연기략초(松石居士年紀略抄)」와 『송석유고(松石遺稿)』를 통해 이병연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그중 편찬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조선환여승람』을 출판하게 된 경위, 선조 현양과 관련 문헌 편찬을 논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이병연의 생애를 전반적인 다루면서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젊은 시절 편찬 참여 경험과 그 이후 『조선환여승람』을 출판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병연의 일생을 개괄하면, 『조선환여승람』 출판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중요한 기점이니, 그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연안이씨 시조단 건립과 『부여금성단지

1) 허경진, 「<조선환여승람>에 끼워져 있었던 독자와 발행자의 편지들」, 『하버드 대학 앤칭 도서관의 한국고서들』, 웅진북스, 2003; 허경진·강혜중, 「『조선환여승람』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연구』 35, 2012.

『扶餘錦城檀誌』 편찬, 대성단(大成壇) 건립과 『대성단실록』 편찬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조의 현양 의식의 발로인 『연리선적약고(延李先蹟略考)』, 『노랄수사(老辣瀟辭)』, 『연성충정공연보(延城忠靖公年譜)』, 『사세발해유첩(四世發解遺帖)』, 『난고시집(蘭皋詩集)』 등 선조 관련 문헌의 편찬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생애와 현실인식

이병연은 1894년(고종31) 11월 4일에 공주군 반탄면(半灘面, 지금 탄천면) 운곡리(雲谷里) 홍성동(紅城洞)에서 태어났다. 부친 석남공(石南公) 이원²⁾의 나이 38세 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이병연의 초명은 병익(秉翼), 자는 백운(伯允), 호는 송석거사(松石居士)이다. <그림 1>은 이병연의 직계 선조이다.



<그림 1> 송석 이병연의 직계 선조

부친 이원의 본생(本生) 직계 선조는 다음과 같다. 현조(玄祖) 명楫(命楫) -

2) 이원의 자는 聖憲, 거주한 마을 이름인 石南으로 自號하였다. 1857년 6월 20일에 공주 목동면 胎封里에서 태어났다. 7세 때 본생 祖考 用夏에게 공부를 배웠다. 23세가 된 기묘년 봄에 입후되었다. 李祖容이 아들이 없어 三從弟 祖冕의 아들 원을 후사로 삼았다. 당시 양부 조용은 세상을 떠났고 김씨 부인이 禮曹立案을 받았다. 『松石遺稿』 「先考石南府君家狀」

고조(高祖) 혜옹(惠鷹, 호 만취헌(晩醉軒)) - 증조(曾祖) 도일(度一, 호 만수옹(晩修翁)) - 조(祖) 용하(用夏, 초휘 경(垓), 호 줄수재(拙修齋)) - 부(父) 조면(祖冕, 호 자화(紫華))이다.

이병연은 1900년 7세 때 부친에게 『천자문』을 배운 것으로 시작하여 8세 때 『효경』을 읽고, 9세 때 『동몽선습』과 『계몽편』 등을 읽었다. 10세 때 『사략(史略)』 초권(初卷)을 읽고서 『소학』 초권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04년 11세 때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이병연은 실학(失學)하였다가 12세 때 분강리(汾江里)에 계신 숙부 백련(白蓮) 이석 댁에 가서 『통감』 초권을 읽었다. 13세 때 그해 9월에 석남촌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가세(家勢)가 더욱 곤궁해져 부친은 호남 지역으로 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문헌 출간 일을 하였다.

1907년 14세 때에는 면암 최익현의 문인인 관재(寬齋) 이교헌(李敎憲) 밑에서 통감 2, 3권을 읽었는데, 본동(本洞) 유 병사(柳兵使) 집안에서 가숙(家塾)을 열어 이교헌을 글공부 선생님으로 모셔온 것이다. 15세 때에는 금파(錦波) 최선생(崔先生)이란 분에게 수학하여 『통감』 4, 5, 6권을 읽고 이로부터 폐학(廢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병연은 자신의 일기에서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하는 시기를 잃어버렸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명문가의 후예였던 부친 이원의 삶과 간난(艱難)했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혼탁한 매관매직과 갑오년 갑오농민운동으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다.³⁾ 그 후 이원은 내종형(內從兄) 전(前) 대사성(大司成) 심구택(沈九澤)과 호남 광주로 내려가 윤리기강의 의리를 부식(扶植)하기 위해 편찬한 『삼강록(三綱錄)』⁴⁾과 『문헌록(文獻錄)』을 간행하였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 어머니 김씨(金氏)는 남매를 데리고 살면서 샅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였다.⁵⁾

3) 이원은 초시에는 합격하였지만, 회시에 불합격하였다. 1889년에 通仕郎 義禁府都事에 올랐다. 1892년 2월에는 6품직 宣祖大王 上尊號都監 第一房 監造官으로 오르니 군직에 붙여 効力副尉 忠武衛副司勇이 되었다. 8월에는 4품에 올라 宣略將軍 龍驤衛副司果가 되었다. 하지만 갑오농민운동을 계기로 下鄉하여 노친을 봉양하였다. 『松石遺稿』 「先考石南府君家狀」

4) 1906년 심구택이 편찬한 『續修三綱錄』을 가리키는 듯하다.

5) 『松石遺稿』 「先考石南府君家狀」

이병연의 혼인과 자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17세) 8월 부여 홍산면 안동김씨와 혼담이 오가고 폐백이 갔는데 그해 겨울 장인이 세상을 떠나서 1912년에 혼인을 하였다. 초취 안동김씨와는 딸 1명을 낳아 훗날 광산김씨 김신호에게 시집갔다. 하지만 1922년(29세) 4월에 부인 안동김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924년(31세) 병환으로 위중한 부친 이원이 서둘러 재취하라고 독촉하여 창원황씨를 재취로 맞이하였다. 1927년(34세) 7월에 이병연이 황해도 연백(延白, 평산(平山) 등지로 출장을 갔다가 연말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전 부인 황씨가 아이를 낳다가 불행히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후 1929년(36세) 1월에 노성(魯城) 산성리(山城里) 안동김씨 문회(文會)의 따님과 혼인을 하였다. 1933년(40세) 9월 장남 덕희(惠熙), 1942년(49세) 5월 차남 철희(熙熙), 1947년(54세) 2월 충희(忠熙), 1951년(58세) 4월 상희(想熙)가 태어났다. 딸은 3녀를 두었는데, 각기 파평윤씨 윤정근, 경주이씨 이정무, 안동김씨 김일한에게 시집갔다.

22세 때 이병연은 시간이 날 때면 경사(經史)를 하나씩 숙람(熟覽)하였다. 그 가운데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맹획(孟獲)의 남만(南蠻)을 평정한 이야기를 1책으로 만들어 한글로 번역하여 규방의 볼거리로 삼아 『무후평만기(武侯平蠻記)』라고 명명하였다.⁶⁾ 1917년 24세 때에 부친 이원의 회갑일을 맞이하였다. 가세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성과 힘을 다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친족과 손님이 7, 80인이 모여 잔치를 치렀다.

이병연의 생애 중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이를 타개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한 태도이다. 1913년 당시 총독부에서는 국내 산림에 미립목지(未立木地) 전부를 측량하고 유력한 사람에게 대부(貸付) 허가를 해 주었다. 이병연이 거주하던 본면 목동과 용성리에는 총 100정보(町步)가 국유지가 되었는데, 공주에 사는 권익채(權益采)가 아들 권경태(權敬

6) 이병연은 1951년에는 『소학』 가운데 閨範의 부녀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뽑아 1권으로 만들어 『女子小學』이라고 이름하고 집안의 부녀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泰) 명의로 대부 허가를 제출하고 각 마을 그의 소작인들을 산지기로 삼아 엄격히 금양(禁養) 관리했다. 권익채는 중인 출신으로 당시 서천군수를 지내는 등 유력한 인물이었다. 문제는 이병연 집안의 안산(案山) 10여 정보가 그 안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5년 지난 1918년에 총독부에서 임야조사 업무가 끝나쳐 사정공시(査定公示)했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신청[不服申立]하도록 하였다. 이병연은 안산 10여 정보를 권경태에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불복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수습해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병연은 그 후에도 수차례 불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거서류를 작성하면서 몇몇 마을 사람들의 인증을 위해 날인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인증서류에 날인하기도 했지만, 권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대부와 양여를 받아 조림(造林)한 지 근 20여 년이 흘렀는데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병연을 실성했다고 여긴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1927년 여름에 불복신청했던 안산 11정보를 총독부로부터 출급(出給)을 받게 되었다.⁷⁾ 당시 도청에서는 충남에서 환추(還推)된 사안은 2건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처럼 이병연은 권리에 대해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여 안산(案山) 10여 정보를 환급받았고 거주지 뒷산 산지도 양여 허락을 받았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소유권 등의 법률적 지식과 방도를 잘 알고 대응했던 것이다.

이병연은 일생 동안 연안이씨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선양 활동에 열성을 바쳤다. 그중에도 대표적인 선조가 바로 연평부원군 이귀(李貴)이다.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에 위치한 오산사(鰲山祠)는 오산창의사(鰲山倡義祠)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에서 창의에 참여한 선인(先人)을 추모하여 세운 사당이다. 김경수·김제민·기효간·윤진 등이 전라도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서 김경수를 맹주로, 김제민을 의병장으로 삼아 창의하였다. 장

7) 안산 내의 材木의 경우는 이전에 양여를 받았던 상대방이 기른 재목이라고 소송하여 매각하여 반분했다고 한다.

성 남문창의는 총 3차로 전개되었는데, 의병을 재기하여 2차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장성현감 이귀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 가능하였다.⁸⁾ 그 후 오산사를 건립하고 창의에 참여한 인물들의 위패가 봉안되었는데, 이귀를 주벽으로 하고 그다음이 김정수, 김제민 차례로 위차를 정했다. 남문창의비명(南門倡義碑銘)의 위차에도 ‘지주 충정공 이공귀(地主忠定公李公貴)’가 제1위로 새겨져 있다. 그리고 『남문창의사적』 권2 「제현사실(諸賢事實)」에서도 이귀를 제일 먼저 소개하였다.⁹⁾

그런데 1961년(68세) 10월 익산의 사우당공파(四友堂公派) 봉희(鳳熙)와 유성(儒城) 갑동(甲洞) 준배(浚培)가 이병연을 찾아와서 장성 오산사에 주벽으로 모신 연평 이귀의 위패 위차가 오봉 김제민의 위차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달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그들과 함께 장성에 내려갔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다.¹⁰⁾ 1961년 10월에 이어 1962년 1월에 이병연은 또다시 봉희, 준배와 함께 장성에 가서 유도회장 기형도(奇衡度)를 만나 부탁하고, 다음날에 장성 전교로 선출될 변동열을 만나 위패 문제 해결을 신신당부하였다.¹¹⁾ 그리고 위패를 뒤바꾼 인물로 지목된 오산사 장의(掌議) 정순익(鄭淳翼)을 만나 질책하자, 정순익은 9월 15일 오산사 향사가 있으니 하루 전날 유회(儒會)에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오산사 향사 전날 9월 14일 아침에 연안이씨 봉희, 진(焄), 병수(秉秀), 병화(秉化), 병룡(秉龍) 5인이 도착하여 오산사에 봉안되어 온 선조 이귀

8) 1차 창 의 활동 기간에 장성현감은 白守宗이다. 다음으로 부임한 이귀는 의병지도층과 함께 정예병 40명을 선발하여 膽勇軍이라는 일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일본군 장수를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고, 지역 방비를 위해 중국 절강병법을 도입하여 고을 군사 300명을 훈련시키기도 하였다. 『耳溪集』 卷25, 「長城南門倡義碑并序」

9) 조원래,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제1부 3장 「장성 남문창의에서 본 임란의병의 일형태」, 아세아문화사, 2001, 77-78쪽 참조; 김만호, 「조선후기 長城 지역의 南門倡義 기억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 67, 2017, 44쪽 참조.

10) 「松石居士年記略抄」. “辛丑(六十八歲) ……十月. 益山八峰面富松里族人四友堂公派鳳熙及儒城甲洞浚培來言, 長城鰲山祠, 延平先祖位牌, 以金鰲峰位牌易位云. 故同爲下去長城而未果耳.”

11) 『汕巖全稿』 而之錄 권11에 1962년 2월에 본 고장의 선비들이 오산사 위패가 바뀐 사안에 대해 익산향교에 답통하는 글[鄉中多士以鰲山祠換位事答通益山鄉校文]이 실려 있다. 오산사를 세울 때 앞선 선배분들이 위차를 정한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쉽사리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의 위패를 받들어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병연은 이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모두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병수 등이 이귀의 위패를 봉안하고 오산사를 떠나고 말았다.

이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 1964년(71세) 5월 이후 이병연은 정황(鄭晃), 윤직한(尹稷漢)과 함께 성균관장 김순동(金舜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 사안을 해결하기를 요청했다. 마침내 9월 15일 사림들과 이귀의 본손 모두 150여 명이 오산사에 모여 위패 봉안 제향을 올렸다. 장성군수 김남섭(金南燮)이 초헌관, 경찰서장 이운영(李雲榮)이 아헌관, 교육장(教育長) 김일수(金駟洙)가 삼헌관이 되어 제향을 치렀다.

이병연은 1962년 1월부터 시작하여 1964년 9월 15일까지 오산사 위차 문제로, 장성행(長城行) 4차, 익산행(益山行) 2차, 경성행(京城行) 4차 도합 10여 차례를 도로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3년이 지나고서야 바로잡히게 되었다. 또한 당시 이병연은 오산사 강당 수리비 총 1만 5천 원 중 3분의 1을 혼자 부담하여 돈을 마련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1년이 지난 다음 해인 1965년(72세) 9월 19일 이병연이 광주향교 전교 이교채(李敎采)를 방문했는데, 전교의 책상 위에 『호남원우록(湖南院宇錄)』¹²⁾이라는 책자가 있어 빌려서 보았다. 그런데 장성 오산사 위차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오산사에는 총 67위의 위패를 모셔졌는데, 제1위가 오봉 김제민, 제2위가 오천 김경수, 제3위가 연평부원군 이귀 순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호남원우록』의 발행소는 나주향교, 발행인은 나도수(羅燾脩)였다.

1967년(74세) 4월 30일에 이병수(李秉洙)와 함께 광주향교를 가서 전교 이교채를 만나서 『호남원우록』을 개장하는 일을 상의했다. 오산사는 본래 연평부원군이 주향(主享)인데, 제3위로 기재되어 있어 개장하기 위해 해당 부분

12) 호남의 각 군의 서원, 사우를 비롯하여 壇廟, 影堂, 影閣 등도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자는 1957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1960년에 간행되었다. 서문은 완산 李相儀, 나주 吳大善이 썼고, 발문은 全義 李敎采, 나주 羅燾脩가 썼다. 『호남원우록』 간행 위원회에서 이상익의 도유사, 이교채는 부유사, 나도수는 총무를 맡았다.

1장을 발출(拔出)해 와서 광주 청우당(靑友堂) 유호석(柳浩錫)의 인쇄소에 부탁해 개장할 종이 600장을 인쇄하였다. 이후 『호남원우록』 분질한 곳을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묻고 하나하나 초록하였다. 그리고 광산, 함평, 나주, 영광, 담양, 창평, 보성, 순천, 고흥, 승주, 장흥, 강진, 해남, 무안 등지를 다니며 개장하기 위해 그곳 유림을 만나 부탁하고 개장 종이를 나누어주었다. 이병연은 총 56일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태어나 처음 겪어본 일이라고 토로까지 하였다. 고령의 나이에 당시만 해도 교통과 통신이 좋지 않아 상대측과 연락이 좀처럼 되지 않아 헛걸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객지에서 유숙하면서 갖은 고생을 감내했다. 이처럼 장성 오산사에 있는 선조 이귀의 위차 문제에 열성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병연은 말년에 자녀들을 시집 장가를 보낼 때는 살림살이와 몸치장은 검소함을 위주로 삼았으나, 잔칫날 손님 대접하는 술과 음식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1940년에는 선영 소재 임야 10여 정보를 매입하였다. 이전에 종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후 차종증손(次宗曾孫) 갑희(甲熙)가 봉사(奉祀)했는데 사망한 이후 빚이 쌓여 종산(宗山)을 보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병연이 돈을 주고 매입하고 후손 12명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보존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인근의 종족(宗族)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아 선조 묘제(墓制)에 참여하지 않아 거의 제사가 끊어질 지경이라 빈한(貧寒)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종족이 혼례할 때 땅을 나누어주어 정착하게 하였다. 이렇게 정착한 호(戶)가 10여 호로 약 50여 명이라고 하였다.

이병연은 여력이 있을 때마다 한적(漢籍)을 구입하여 집안에 보관하였다. 주 구입처는 전주와 서울의 고서점이었다. 1963년(70세) 4월 금산사를 둘러보고 전주에 가서 규벽(圭璧, 작은 글자로 찍어 부피를 줄인 책자) 칠서(七書), 『예기』, 『공자가어』, 『동래박의』, 『선부(選賦)』 등 70여 권을 구입했다. 성균관에 일을 보러 갔다가 『율곡전서』 23책을 3천 원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1964년 5월 서울에서 『의례』, 『우암집』, 『백사집』, 『근사속록(近思續錄)』, 『성학집요』, 『대학연의』 등 50여 권을 구입했다. 같은 해 8월 성균관을 방문하고서 서포(書鋪)에 가서 『예의속집(禮疑續輯)』, 『주문작해(朱文酌解)』, 『송조명신』

언행록』 등 기타 각종 책 40여 권을 구입해서 왔다.

10여 세 때 가산이 어려워져 전래되어 오던 약간의 책조차도 남김없이 흠어져 버렸던 옛 기억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신을 회상하면서¹³⁾ 이병연은 1,000여 권을 구입하여 집안에 두고 훗날 자손들이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3. 『조선환여승람』 편찬과정

이병연은 30대 중반에 방대한 『조선환여승람』을 편찬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선환여승람』 편찬 이전의 출판 경험과 『조선환여승람』을 편찬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병연이 19세 때인 1912년 3월에 혼인하고서 얼마 뒤 정읍에 내려갔다. 당시 부친 이원이 정읍 소성면 공평리에서 『잠영보(簪纓譜)』¹⁴⁾ 출간으로 인하여 머물러 있었다. 부친 이원은 서문(序文) 격인 「조선잠영실기(朝鮮簪纓實記)」를 썼다. 이병연은 몇 개월 동안 정읍에 가서 부친을 모시면서 이 책자의 출간 일을 돕다가 본가로 돌아왔다. 1914년 21세 때에도 부친이 이전에 끝내지 못했던 출간 일로 담양 이계술(李桂述) 집에 머물면서 끝마쳤는데, 이때에도 이병연은 담양에서 부친을 모시고 출간을 도왔다.

1919년에 숙부 이석과 정산(靖山) 김흥기가 남원 양사재에서 『이학금보(彝學衿譜)』¹⁵⁾ 책자 출간을 위해 머물러 있었다. 이병연은 그곳에 가서 13책의 책자를 편성하는 일을 도왔는데, 연말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송병제(宋秉濟)가 1917년에 서문을 썼는데 숙부 이석이 1921년에 발문을 썼다. 발문을 살펴보면, 이석이 『조선이학금보』 출간을 주도했고 이 책자의 출간을 위해 약 4, 5년의 세월과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13) 「松石居士年紀略抄」. “余自十歲前, 家產蕩敗, 如干傳來冊子, 竝爲賣散無餘, 故不得讀書而失學.”

14) 조선의 주요 가문들의 계보를 수록한 책자로, 『조선잠영보』라고 한다. 1915년 정읍에서 목활자본, 10책, 판심제는 ‘朝鮮萬姓簪纓譜’로 간행되었다.

15) 『彝學衿譜』의 완청은 『朝鮮彝學衿譜』이다. 총 9권 13책으로 1921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이학금보』는 충신, 공신, 효자, 순절열녀, 효녀, 현원(賢媛), 여행(女行), 유림, 명신, 문장, 시가(詩家), 필원(筆苑), 진목(賑睦) 그리고 주요 가문의 세보(世譜) 등의 조항으로 방대히 수록되어 있다. 이석은 발문에서 ‘이(彝)’는 윤리기강을 중시하고, ‘학(學)’은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금(衿, 襟)’은 세보(世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병연은 숙부 이석이 주도한 『조선이학금보』 간행에 참여함으로써 조선 시대 인물들의 정보와 책자 형태로 구성하는 편찬 경험을 쌓았다.

1921년(28세)에 이병연은 광주향교에서 『전남청금록(全南靑衿錄)』을 보았다. 『전남청금록』은 간행되어 큰 성황을 이루고 있던 중이었다. 청금록은 유생이나 선비의 명단 기록물이다. 이병연은 그 일을 주관한 이회감(李會澣)¹⁶⁾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마침 출타 중이라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병연은 돌아와 삼중형 이병두(李秉斗)를 만나 광주향교의 『전남청금록』이 매우 좋으니, 『전선청금록(全鮮靑衿錄)』을 잘 만들어 출간하자고 제안한다. 전남지역에서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편찬 간행을 계획한 것이다.

1922년(29세)에 경성에 거주하는 외종(外從) 안병태(安秉台) 명의로 허가를 받고 제반 문구는 이병연이 작성하여 공주인쇄소에서 『전선청금록』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그 비용은 공주에 거주하는 전 참판 김윤환(金潤煥)이 장재(掌財)가 되어 우선 300여 원을 내놓았다.

당시 이병연은 노성 궐리사에 간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겼으나, 장재 김윤환은 호응하지 않았기에 이병두가 최재창(崔載昌)을 데려와서 김윤환의 돈을 갚고 노성 궐리사에 간소를 차렸다. 그리고 13도(道) 각 군(郡) 향교 전체에 통문을 발송하였다. 이병두 명의로 하고 총무가 되었다. 다음 해 1923년(30세) 관련 일들이 차츰 가닥을 잡혔다고 한다. 각 군에 유사를 파송하고 이병연은 함흥 건(咸興件)을 간출(刊出)하고, 수금하기 위해 함흥으로

16) 숙부 이석은 남원에서 간행한 『朝鮮綱獻錄』(6책, 목활자)에도 참여하여 1919년에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충신, 효자, 열녀, 賢媛, 道學, 賑恤, 詩律에 뛰어난 인물을 분류하여 수록한 책자이다.

17) 이회감은 1932년 『續補文獻錄』, 1934년 『道學淵源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출장을 갔다. 해당 군(郡)의 유사 한당(韓巖) 씨, 이택우(李擇愚), 강씨(姜氏)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식비(食費)가 거의 100원이었기에 수급해서 식비를 갚아주고는 겨우 교통비 정도만을 얻고 돌아왔다. 이런 문제는 궐리사 간소도 마찬가지였다.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약간의 수입으로는 식비 지급도 부족하였다.

1925년(32세) 간소(刊所)에 머물다가 겨울에 순창으로 출장을 갔다. 1926년에 이병두가 간소의 쓸데없는 비용 절감을 위해 목동(木洞) 사정촌(泗亭村)으로 옮겼다. 그사이 120여 군(郡) 간행 건(件)이 신청되었는데, 간소를 옮겨 간행한 이후에는 수입금을 이병두와 최재창 두 사람만 배분해서 이병연과는 관계가 없었다.

1927년(34세) 『전선청금록』 간소의 여러 친구의 권유로 7월에 황해도 연백(延白)·평산(平山) 등지에 갔는데 별 소득이 없이 연말에 집으로 돌아왔다. 『전선청금록』은 지역별로 구분해서 제작하여 판매한 방식은 『조선환여승람』의 모델이 되었다. 현전하는 『조선환여승람』은 129개 군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되어 간행한 것은 바로 『전선청금록』 간행에 참여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1928년(35세)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어 집 뒤편에 있는 역목(櫟木)을 매각하며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물승람(人物勝覽)』 2책을 자신의 명의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이병연이 『인물승람』을 출허하였는데, 불허되어 헛수고만하고 낭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병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 해에 전년도 허가 신청을 했던 『인물승람』에 산천(山川)과 풍토(風土)를 추가하여 『환여승람(寰輿勝覽)』이라고 개명하고 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경성에 사는 외종(外從) 안병태(安秉台)에게 교섭을 부탁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조선환여승람』에는 향촌의 인물에 대한 항목이 전통시대 승람서에 비하여 더욱 세분화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⁸⁾

18) 허경진, 위의 논문, 247쪽.

하지만 왜 이런 인물에 대해 이런 분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병연이 20대에 『조선이학금보』 간행에 참여한 경험과 『조선환여승람』에 앞서 원래 『인물승람』을 간행하려고 했던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929년 11월에 드디어 『조선환여승람』 허가를 받았고, 공주지방법원 상업 등기(商業登記)를 내어 관보와 신문에 기재되어 전국에 공포되었다. 허가가 나오기 한두 달 전인 1929년 10월 전 판서 윤용구(尹用求)와 전 규장각 학사 민경호(閔京鎬)가 서문을 쓰고,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전 내장원 경 김윤환(金潤煥)과 이병연이 각각 발문을 썼다. 그 후 1936년(병자년) 10월에 안정여(安鼎呂)가 발문을 또다시 쓰기도 하였다. 이병연이 편집, 안병태가 교열을 담당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윤환은 『전선청금록』 출간 초기에 장재(掌財)가 된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보문사(普文社) 단독 명의로 전국 각 향교와 유림 집안에 통문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지역 유림의 관심과 요구와도 맞아 떨어진 편찬 방향이었다.

『조선환여승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리부(地理部)와 인물부(人物部)로 나뉘고, 지리부는 지지편(地誌篇)으로, 인물부는 도학편(道學篇)·덕업편(德業篇)·삼강편(三綱篇)·과환편(科宦篇)으로 구성되었다. 인물부의 각 편의 항목과 기준은 <표 1>과 같다.¹⁹⁾

19) 『조선환여승람』 인물편에 세분화된 항목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1〉『조선환여승람』의 편명, 항목, 기준

편명	항목	기준	편명	항목	기준
道學篇	先正	陞廡諸賢	德業篇	詩家	附善詩
	儒賢	道學宗於一世		筆苑	附善筆
	學行	學問德行 百世師表		畫家	附善畫
	隱逸	志高德博 不臣王廷		行誼	附名望 善行
	遺逸	遁世無憫 文學純正		賑睦	附慈善
	儒行	學有淵源 名重斯文	三綱篇	忠臣	爲國殉節 附節義
	文行	文名卓行		孝子	附孝女 孝婦 順孫 友愛
德業篇	勳臣	錄勳封君		貞烈	附賢媛 女行
	原從勳	附忠勳	科宦篇	文科	
	功臣	爲國立功		司馬	
	名臣	位躋正卿 致君澤民		武科	
	名宦	歷敘清顯		蔭仕	
	名官	莅官名政		壽職	
	清白	莅本郡清政		贈職	
	文章	附文苑 善文		附名釋	

『조선환여승람』의 인물편의 장점은 청도 출신의 유학자 예대희(芮大禧)²⁰⁾가 1932년에 쓴 『청도군지(淸道郡誌)』의 발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청도군지』 발문에는 청도의 옛 군지(郡誌)의 내용이 소략하여 단지 성명만 있고 자, 호, 본관, 세계(世系), 행록(行錄)이 없었다. 마침 『조선환여승람』이 편찬되자 이를 참조하면서 더 추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예대희는 호서(湖西)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던 중 『조선환여승람』 청도군 편을 구득하고, 곧바로 향우(鄕友) 장화식(蔣華植, 1871~1947)²¹⁾에게 연락을 취하고 속수(續修)한 것이다. 『청도군지』의 서술방식은 ‘차라리 상세할지언정 소략함이 없고 차라리 번다할지언정 간략함이 없는[寧詳無略 寧繁無簡]’ 것으로 인물 정보를 대대적으로 추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군지를 『조선환여승람』 전집에 포함시켜 수십 책을

20) 예대희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 유학자로, 본관은 義興, 자는 國彦, 호는 小南·希齋·伊山이다.

21) 장화식의 본관은 牙山, 자는 孝重, 호는 復庵이다. 西山 金興洛과 晩求 李種杞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더 발간하여 각 문중과 후손에게 수십 권을 배포한다고 했다.²²⁾ 또한 예대회의 발문을 『조선환여승람』 청도군 편을 재간행할 때 수록하였다.²³⁾

1930년 가을에 처음으로 『조선환여승람』 고흥군(高興郡) 건이 이루어졌다.²⁴⁾ 1931년에는 논산군 건을 간행했는데, 담당자에게서 이익금을 잃어버려 본전만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곡물 가격 폭락, 미수금 등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적절히 해결해 나갔던 모양이다.

1933년 이병연의 나이 40세 때부터는 각 군에서 간행 신청이 계속 들어와 상당한 이익금을 벌게 되었다. 그사이 제작비용과 형제들의 혼인 등으로 1천 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모두 갚고 연말에는 700원 정도 남아 이때부터 여력이 있게 되었다. 1933년은 이병연에게 뜻깊은 해였다. 모친의 회갑이 바로 이 해 7월 4일이었다. 모친의 방이 비좁아 늘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이때 바깥채를 건축하여 6월 그믐에 준공했다. 9월 29일에는 장남 덕희(惠熙)가 태어났고, 11월에는 장녀가 광산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이병연은 『조선환여승람』을 간행하면서 선조인 저헌 이석형(李石亨, 1415~1477)²⁵⁾의 한시와 기문(記文)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1456년 6월 이석형이 전라도 관찰사로 도내를 순행하던 중 익산에 도착해서 단종복위운동과 사육신의 참화 소식을 듣고 지었다는 시를 『조선환여승람』 익산군 편에 수록하였

22) “우리 군에는 옛날에 군지가 있었는데, 그 산천·토산·누관·고적에 소략함이 많았고, 인물에 있어서는 단지 성명만을 적고 자호나 관향이 없었으며 세계와 행록이 없어 더욱이 지극히 소략하였다. 현자들이 이를 한스럽게 여겼는데, 마침 연안 이병연 군이 『여지승람』 속편을 편집하여 ‘조선환여승람’이라 하였다. …… 이에 『조선환여승람』 전집에 편입시켜, 수십 책자를 더 간행하여 각 문중과 후손에게 반포하여 우리 향촌의 백세의 공안으로 삼는다.[吾郡舊有郡誌, 其山川土山樓觀古跡, 多有疏略. 至於人物, 只書姓名而無字號鄉貫, 無世系行錄, 尤極疏略, 賢者恨之. 適延安李君秉延, 續編輿地名曰, 朝鮮寰輿勝覽. …… 於是, 編入於寰輿全集, 加印幾十冊子, 頒布於各門各裔, 以爲吾鄉百世公案.]” 『조선환여승람』 청도군 편, 민족문화, 2013. 허정진, 위의 논문, 250쪽 재인용.

23) 『伊山文集』 권6에는 「淸道郡誌跋」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는데, 『조선환여승람』에서는 「淸道郡跋」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글자 출입이 몇 자 정도 있다.

24) 이병연은 『조선환여승람』 첫 번째 출간한 고흥군 편 損竹島에 대해 지은 한시를 수록하였다. 당진 출신의 鹿島萬戶李大源이 순절할 때 지은 시를 차운한 것이다.

25) 이석형의 자는 伯玉, 호는 樗軒, 시호는 文康이다. 1441년(세종23) 한 해에 생원시, 진사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성종 대에 판중추부사 이석형이 『大學衍義輯略』을 편찬하여 올렸는데, 기존의 번다한 문장을 생략하고 고려의 역사를 추가했다.

다.²⁶⁾ 또한 조선시대에는 용안현(龍安縣)과 여산군(礪山郡)은 익산 인근의 별도 군현 단위였으나, 여러 번 구역 개편을 거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익산군에 병합되었다. 따라서 이병연은 용안현과 여산군 관련 이석형의 시를 『조선환여승람』 익산군 편에 수록했다.²⁷⁾

또한 『조선환여승람』 삼척 편 누정조(樓亭條) 죽서루(竹西樓)에 대해 팔도 체찰사 이석헌의 시와 이를 차운한 난고(蘭臯) 이해, 또다시 차운한 이병연의 시를 수록했다.²⁸⁾ 그리고 이병연에 대해 이해의 증손이라고 명기했고, 이해는 청백조(淸白條)에 간략한 약력을 수록했다. 이처럼 선조와 이병연 자신의 한시를 상당수를 『조선환여승람』 곳곳에 수록함으로써 선조를 현양하고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했다.

사실 편찬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겨운 일이다. 또한 실제 보문사 운영 역시 쉽지 않는 일일 것이다. 1935년 보문사 주임 이병연 명의로 보낸 내용증명 통지서를 살펴보면, 계약에 의거해서 간행하고 인환(引換) 대금을 청구하자 수령하지 않고 계약위반을 해서 부득이 향후 대전 지방법원 공주지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니, 이 통지서가 도착한 지 5일 안에 처리 회답하라는 내용이다.²⁹⁾ 『조선환여승람』을 간행하며 보문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관련 자료이다. 또한 이병연이 화순군 문묘직원과 유림에게 보낸 공함(公函)을 보면 저작권 침해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³⁰⁾

이후 각처에서 구입 신청서가 답지하여 교정과 인쇄에 분주한 한편, 선조들의 묘소를 이장(移葬)하고 석물을 하나하나씩 조성하였다. 44세 때인 1937년 1월 공주읍 김갑순(金甲淳)의 토지 50여 두락지를 매입하여 이로부터 곤궁한 생활을 벗어났다고 기록되었다.

1942년(49세)의 기록을 보면, 전쟁 이후 물자가 궁핍하고 관청에서 금지하

26) 『樗軒集』 卷上, 「次益山東軒韻」, 丙子六月.

27) 같은 책, 「次龍安東軒韻」, 「次礪山洗心亭韻」.

28) 『松石遺稿』에는 「敬步先祖文康公暨曾祖蘭臯公三陟竹西樓韻」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9) 허경진, 앞의 책, 47쪽 인용.

30) “不知何許人 이 該冊子中 第十一張을 自意改印하야 貴管內 各處 分軼冊子에 換插한다” 허경진, 같은 책, 47쪽 재인용.

고 민간에 있는 곡식조차 수색하여 거두어 가는 상황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 체제로 개편되어 패전 때까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수탈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남북한이 분단되고, 또 한문이 폐지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병연은 탄식하였다.

1964년(71세)에는 이전에 간행했던 『조선환여승람』 전국 건(全國件) 1질 47책을 결책(結冊)하고, 충남 건(忠南件) 1질 5책을 5질 결책하여 집안에 보관하였는데,³¹⁾ 1질은 성균관에 존안하였다. 그 후 1990년 3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내용에 이병연의 장남 덕희 씨가 『조선환여승람』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하였는데 아직 제책(製冊)이 되지 않는 초고 3톤 정도였다고 한다.

4. 선조(先祖) 현양과 문헌 편찬

1) 부여 시조단 건립과 『부여금성단지』

연안이씨 시조는 당나라의 장수 이무(李茂)로, 신라가 백제를 평정하던 660년(신라 무열왕 7년) 나당 연합군의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을 따라 온 중랑장(中郎將)이었다. 이무는 전쟁이 끝난 후 신라에 귀화하였으며 통일 신라 조정에서는 연안백(延安伯)으로 봉했다. 우리나라 성씨 시조가 대개는 그렇듯이 묘소를 실전(失傳)하는 등의 이유로 한참 후대에야 시조의 추모사업이 시작되었다. 연안이씨 시조 이무 역시 종종에서는 남북분단 등 여러 사정으로 제향 추모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56년 4월에 부여 교육감 이만승(李萬承)이 부여읍 화지산(花枝山) 정상에 망해정(望海亭)을 증건하였다. 이곳에서 연안이씨 화수회(花樹會)를 열었다. 회의목적은 시조단(始祖壇) 건립과 대중보(大宗譜) 발간에 관한

31)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문사 출판사 보존용 『조선환여승람』이 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이 『조선환여승람』 책자 속에는 출판간행과 관련된 엽서, 서류들도 함께 있다. 허경진, 앞의 책 참조.

사안이었다. 전임 회장이 노병으로 사임하여 이병연을 회장에 추천하였다. 당시 상중(喪中)이라 이병연이 회장직을 사양했지만, 9인의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하는 수 없이 몇 달 남은 상기(喪期) 이후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11월 8일 시조단 건립과 대중보 발간에 각 임원을 선출하고, 회장 이병연을 종약장(宗約長)으로 임명했다. 다음 해 1월 총무 이병구(李秉龜)가 찾아와서 재무부장관을 지낸 이중재(李重宰) 씨가 종약장을 맡으면 재력이 넉넉해 종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자, 이병연은 흔쾌히 종약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후 시조단 건립지 선정을 둘러싸고 연안이씨 종중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불화를 겪었다. 시조단 건립지로 부여와 유성 갑동(甲洞)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각각 나뉘어졌다. 이병연은 부여 쪽에 시조단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병구가 이만승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시조의 자취가 있는 부여는 바로 백제가 멸망한 땅이다. 지역 여론상 백제의 옛터에 시조단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병연은 “시간적으로 천여 년 전 일이고, 자손이 선조를 위한 일을 하는데 무슨 여론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고 “현재 부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백제의 후손인가?”라는 답변으로 부여에 시조단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성 갑동으로 정할 경우 종회(宗會)의 가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성에는 원래 사우당공계 종산으로, 이시담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또한 이병연은 몇 차례 부여 화지산 부근을 다니며 시조단으로 적당한 곳을 찾아다녔다. 결국 이병연은 시조단 부여 건립지로 부여읍 남동리 동남리(東南里) 산 15번지 금성단(錦城山) 자락으로 정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성 갑동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종원들에게 성금을 거두어 시조단을 건립하고 있었다.

1958년(65세) 2월에 이병연은 부여 시조단에 석물을 세우고, 3월 12일 초혼제를 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날 마침 큰비가 내려 각처의 제관들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祭物)을 설비(設備)했는데 제사를 거행하지는 못하고 9월 3일로 날짜를 연기하였다. 9월 3일에 각처 유림과 본손 5, 60명이 와서 초혼제와 아울러 제향을 지냈다.

여러 차례 해결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두 곳의 시조단 문제로 종종 간에 갈등하였다. 결국 이병연은 한 발 물러서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시조 묘소를 실전(失傳)했기 때문에 유성(儒城)은 지석(誌石)을 묻고 단을 쌓으면 분묘단(墳墓壇)³²⁾이 되고, 부여의 경우는 시조의 자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조 이귀의 장성 창의단(倡義壇)의 사례를 본따 단을 쌓아 한 고을의 사람들과 함께 향사를 지내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스스로 납부한 금액 외에는 제종(諸宗)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1958년 10월 15일에 「부여금성단설단전말기」라는 제목으로 그 전개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이병연은 1960년(67세) 8월 20일 시조단 기적비(紀蹟碑)를 세웠다. 이때 백미(白米) 33가마니 가격이 소용되었는데, 이를 이병연이 집안 선산의 재목(材木)을 팔아 마련했다. 그리고 매년 제향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³³⁾ 1968년 3월 21일 재종제(再從弟) 병국(秉國)과 함께 부여 시조 단소(壇所)에 양회(洋灰, 시멘트)로 병풍석(屏風石)을 만들었는데 비용이 9천 8백 원이 소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병연은 1968년 『부여금성단지(扶餘錦城壇誌)』를 간행했다. 서문은 학성(鶴城) 김재석(金載石)이 썼고, 부록 금성단운(錦城壇韻) 편에 이병연의 「부여 화수형연안백금성단운(扶餘花樹形延安伯錦城壇韻)」³⁴⁾이라는 한시가 있다. 『부여금성단지』는 500질을 대전 이문사(以文社)에서 간행하였는데, 동시에 『줄수재집(拙修齋集)』 100질을 이문사에서 간행하였다.

『부여금성단지』에는 위치를 그린 약도, 제향에 쓰인 초혼사, 축문, 홀기, 제관 명단, 그리고 향원과 재임의 규약, 시조 이무의 공로와 역사적 기록, 단소 건립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 부록으로 금성단의 원운과 차운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를 통해 부여 시조단의 건립 과정과 노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해 만든 것이다.

32) 연안이씨 시조 묘소를 조성하였는데, 현재 대전 국립공원 현충원 내에 위치한다.

33) 1967년 9월 3일 부여 竹節里 秉學과 竹橋里 成榮이 각 100원씩 성금했는데 무술년(1958년) 이후 십여 년 만에 성금한 초유의 일이라고 부기했다.

34) 『松石遺稿』. “東征于威自神州, 千載倒懸先解憂. 平鎮偉功宗社計, 羹牆追慕禮經酬. 九龍大野藏天富, 白馬長江帶地優. 花樹錦城壇滿發, 有光槿域萬年秋.”

2) 대성단(大成壇) 건립과 『대성단실록』

‘집대성(集大成)’이라는 말은 원래 맹자가 공자의 위대함을 표현한 말이다.³⁵⁾ 공자야말로 앞선 여러 성인의 장점을 한 몸에 모두 갖추어 크게 이룬 성인이라고 한 것이다. 공자를 대성지성(大成至聖)이라고 하고, 문묘(文廟) 대성전(大成殿)의 ‘대성(大成)’ 역시 여기에서 연유한 말이다.

이병연의 증조 줄수재공 용하(用夏)는 항상 공자는 여러 성인을 집대성했고, 주자는 여러 현인(賢人)을 집대성했으며, 율곡 이이는 여러 유자(儒者)를 집대성했다고 하여 「삼성록(三成錄)」을 찬술하였다. 부친 석촌공은 줄수재공에게 수학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삼성록」을 간행했다.³⁶⁾ 1945년 을유년 해방 이후에 이병연은 자질(子姪)과 마을 아이 십여 명을 모아 한문을 가르쳤다. 이곳을 삼성학원(三成學院)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1946년부터 삼성(三成)의 의리를 본받아 지패(紙牌)로 설위(設位)하고 근방 사림 및 한학 제생 5, 60명이 매년 제사 참배하였다.

1954년 이후 신식학교의 확대와 한문 폐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삼성학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삼성학원에서는 9년 동안 지낸 성현에 대한 제향을 가며 그만둘 수 없다는 개인적 의견과 사론(士論)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계 김장생은 예학(禮學)으로 대성했고 목재 이귀는 명륜(明倫)으로 대성했다고 하여 기존 공자·주자·율곡 3위(位)에 2위를 더하여 총 5위를 설위할 계획을 세웠다.

이병연은 1960년에 통문을 보내 인근 사림의 동의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해 봄에 공자 정단(正壇)을 먼저 설립하고 다음으로 주자(朱子) 별단(別壇)을 설립하고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목재 이귀의 3위를 배향하여 모두 5위의 단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착수하였다. 그리고 1960년 「대성단창설취

35) 『孟子』「萬章 下」, “伯夷, 聖之清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子, 聖之時者也. 孔子之謂集大成.”

36) 참고로, 이병연이 간행한 『줄수재집』 권2에 「삼성록」을 수록했는데, 숙부 이석이 1909년에 쓴 서문도 수록했다.

지문」을 각 군(郡)의 유림들에게 보내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1961년 봄 공주 이인면 목동리 돌마루마을 와룡산 중턱에 대성단을 준공했다. 4월 3일을 제향일로 정하여 함흥 문회서원(文會書院)과 강릉 오봉서원(五峯書院)의 예에 따라 향사를 올렸다. 문회서원과 오봉서원은 공자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서원이기 때문이다. 1961년 4월 「대성단기적비명(大成壇紀蹟碑銘)」을 세웠다.

1962년(69세) 7월에 시작하여 『대성단실록』 1책을 편집해서 대전에서 500부를 간행하여 사림과 종족(宗族)에게 반질하였다. 그리고 각처에서 찬송(讚頌)하는 시문(詩文) 100여 수도 부록으로 아울러 간행했다. 『대성단실록』은 성균관, 각군 문묘(文廟, 향교), 및 서원, 각 도서관에는 무료로 보냈다. 그 외 대성단 원운³⁷⁾에 화운(和韻)한 각 사림의 집에도 무료로 보냈는데, 집안 형편에 따라 대성단 향사 비용의 다수를 구매받지 말고 성금을 헌납하기를 요망하였다.³⁸⁾

그리고 국내 사림 중 『대성단실록』 원운에 차운하여 보내면 재간(再刊)할 때 화운시도 간행하여 본가에 1책씩 반책하여 보냈다. 납입한 성금도 간행책 후면에 모군(某郡) 모면(某面) 모리(某里) 모씨(某氏)가 성금 몇 원을 납입했다고 성금록에 첨부하여 후세에 전한다고 했다.³⁹⁾ 이는 『대성단실록』 증보판을 계속 발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유림의 동의와 협조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성단 건립하고 『대성단실록』을 편찬한 이후 인근 유림 중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병연은 재반박하는 통문을 보냈다. 다음 내용은 「서원에 답한 통문[答通諭文]」을 요약한 내용이다. 논산 돈암서원에서 금년(1962년 추정) 춘향 이후 유회(儒會)에서 각 곳에 분질한 『대성단실록』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 재임에게 질의하였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37) 『松石遺稿』. “聖賢垂法濟民公, 化被乾坤撫育中. 莫論利鈍教由得, 懸別華夷道貫通. 綱常植此分明日, 愛敬將斯大振風. 崇慕羹牆仁義發, 紀倫復正禮吾東.”

38) 『대성단실록』을 구해 보고자 하는 국내 사림은 성금 1000원을 送納하면 1책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편 引換으로 청구할 때에는 운송료까지 1300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39) 『大成壇實錄』 「頒冊敬告文」.

공자의 제단을 한 지방 유림이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두 번째 우리나라 제현의 문(文)자와 충(忠)자 시호를 함께 배향하는 일이 있는가? 세 번째 본원(本院, 돈암서원)과 죽림서원⁴⁰⁾의 선정(先正, 사계 김장생) 위패에 증직(贈職)을 쓴 일이 있는가?⁴¹⁾”라는 내용의 질의이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한 지방의 개인이 한 사안이 아니고 인근 7개 읍의 대가(大家)와 사림의 협찬을 받고 5, 60여 인의 동의를 받아 건립했다. 그 외 5개 도(道)의 100여 인이 글을 써서 찬(贊)하고 시를 지어 송축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개성 숭양서원에서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와 충정공(忠靖公) 우현보(禹賢寶)를 열향(列享)하고, 파주 파산서원에서는 문간공(文簡公) 성흔과 충숙공(忠肅公) 백인걸을 열향하고, 경주 서악서원(西岳書院)의 설충, 김유신, 최치원을 열향하는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물론 대성단을 비판하는 질의 내용은 문성공(文成公) 이이와 문원공(文元公) 김장생을 충정공(忠定公) 이귀와 함께 배향함을 은근히 불편해하는 의미이다.

세 번째 질의는 위패에 증직 사용 문제이다. 대성단 설단신위비문(設壇神位碑文)⁴²⁾을 보면, 이이, 김장생, 이귀에게 ‘증 영의정(贈領議政)’이라는 증직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병연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성균관과 각 군의 문묘(文廟, 향교)에서 공자 이하 사성(四聖), 십철(十哲), 70제자가 모두 관작과 시호가 있는데, 1위(位)도 행직(行職)이 없고 모두 증직이라고 답하면서 성균관과 각 군의 문묘가 돈암서원, 죽림서원만 못해 법으로 삼을 수 없느냐고 반박했다. 참고로 돈암서원의 위패는 ‘문원공사계김선생(文元公

40)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서원이다. 1626년(인조4)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이이·성흔·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黃山祠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65년(현종6)에 ‘竹林’이라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조광조와 이황을 추가 배향하였다. 1695년(숙종21) 다시 송시열을 추가 배향하였다.

41) 『松石遺稿』 「答通諭文」.

42) ‘集群儒大成先師 贈領議政栗谷李子文成公祭壇’, ‘倡明禮學大成先師 贈領議政沙溪金文元公祭壇’, ‘立紀明倫大成先師延平府院君 贈領議政默齋李忠定公祭壇’.

沙溪金先生)’이라고 되어 있다.

이어 이병연은 김장생의 종향에 대해서는 가부를 따질 것이 없고 사실상 공자의 향단(享壇)이 문제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돈암서원 측에서 불가하다는 의론이 있고 사람을 보내 대성단과 비석을 훼파하려고 조짐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사림이 공자를 모신 원사(院祠)가 전국에 3, 40여 곳이 있고 혹 영정과 혹 위패를 모시고 있다고 했다.

이병연은 막중한 만동묘(萬東廟)도 애당초 사림이 창건한 후 선액(宣額)된 곳이고, 풍기 백운동서원도 군수 주세붕이 창건해 안향을 모셔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가 되어 선액(宣額)된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사(院祠)에는 특례(特例)가 아니라 성현을 존모하여 건립했다가 권력이 있으면 선액을 받아 장려되고, 권력이 없으면 그대로 사설(私設)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원사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그대로 토로한 것이다. 이어서 지금 무지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전후로 떠들고 선동하여 ‘풍속을 바로잡자.[矯風]’, ‘기강을 세우자.[立紀]’하는 말들은 심히 한심스럽다고 탄식했다.

3) 선조(先祖)의 문헌 편찬

이병연은 1955년(62세) 때에 고조 만수옹(晩修翁) 휘 도일(度一) 이하 5세의 수연시첩(壽宴詩帖) 2책을 만들고 「수연세보(壽宴世寶)」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1957년에는 이병연은 직계 고조부터 선고(先考)까지 4대조의 초시(初試)에 합격했던 시(詩)·부(賦)·표(表)·의(義)·책문(策問) 등 십수 장을 정리하였다. 고조는 지옹 이도성, 증조는 난고 이해, 조부는 자각헌 이조용, 선고는 석남 이원이다. 원본을 상자에 보관 중이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또 좁까지 슬며 후손들이 무슨 글인지 모를까 봐 걱정하여 이병연은 일일이 찾아 전후 순서를 매기고 초출(抄出)하여 1권의 책자로 만들고 『사세발해유첩(四世發解遺帖)』이라고 이름하였다. 고조 이도성과 조부 이조용 두 분은 유고가 없고 산문 하나도 전해 줄 데가 없어 지고조의 「금학당기(琴鶴堂記)」와 조부의 「자각헌서(自覺軒序)」를 별록에 붙였다. 그리고 1972년 4월에 이병연은

증조 난고 이해의 유고 『난고시집(蘭臯詩集)』을 간행했는데 이때 『사세발해유첩』을 부록으로 합편하기도 하였다.

이병연은 1960년에는 『연리선적약고(延李先蹟略考)』를 간행했다. 연안이씨 중 여섯 명 선조의 약력을 조출하여 편집하였다. 여섯 선생은 바로 시조 연안백 이무, 16세조 저현 석형, 11세조 목재 이귀, 10세조 서봉 이시방, 10세 백종조(伯從祖) 조암 이시백, 숙종조(叔從祖) 사우당 이시담이다. 『연리선적약고』(1책)는 450부를 간행하여 각 곳의 유림과 종족에게 분절했다.

다음은 『연리선적약고』의 대상 인물별 수록된 인용 문헌과 찬자를 <표 2>로 정리한 것이다. 수록된 문헌 내용은 행장, 책훈교서 등 대부분 중요 부분만을 발췌해서 수록하였다. 신도비명, 묘갈명은 서문은 제외하고 명(銘)만은 수록하였다.

〈표 2〉 『연리선적약고』의 내용과 찬자

대상 인물	수록 내용	찬자(撰者)
시조 연안백	단소(壇所) 기적비(紀蹟碑)	송석 이병연
저현 이석형	신도비명	월사 이정구
목재 이귀	신도비명	포저 조익
	행장	지천 최명길
	묘표	택당 이식
	책훈교서, 치제문	국왕
	장소(章疏) 서문	현석 박세채
	노랄수사 발문	우산 안방준
	서(書)	사계 김장생
	예조에 올린 글	공청도 이현세 등
	목재선생 봉안위판문	
서봉 이시방	신도비명	우암 송시열
조암 이시백	신도비명	우암 송시열
사우당 이시담	묘갈명	동춘당 송준길
발문		송석 이병연

위 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병연이 이귀와 이시백, 이시방, 이시담 세 아들을 포함시켜 연안이씨

의 대표적인 유명인물 6명 중 4명이 부자(父子) 관계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병연은 발문에서 수십 권의 선조 관련 사적 중에서 요약하여 그분들의 덕행을 상고할 수 있는 첩경의 자료를 삼는다고 했다.⁴³⁾

이병연은 1963년(70세) 7월에는 안방준이 편집한 『노랄수사(老辣瀟辭)』를 간행하였다. 『노랄수사』는 안방준이 79세의 노령의 나이에 연평부원군 이귀의 생애와 행적을 주제별로 8편으로 분류 편집한 책이다. 이 책지는 이귀 부자(父子)와 연인이 깊은 문헌이다. 연평부원군 이귀의 아들 연양군 이시백과 연성군 이시방이 안방준을 방문하여 선친의 일기자료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래 안방준이 『노랄유편(老辣遺編)』이라고 이름하였다가 다시 『노랄수사』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노랄’이란 ‘생강과 계피는 성질이 늙을수록 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⁴⁴⁾ 이는 이귀의 강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간행이 되지 못하고 초본으로 단지 1, 2질만 있는 상황이었다. 이병연은 오늘날 한문이 폐지되어 한글만 쓰고 있어 후손들이 무슨 글인지 몰라 사라질 우려 때문에 간행한 것이다.

원래 『노랄수사』 편집본은 안방준의 발문이 맨 나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병연은 안방준의 발문만 있고 그 이후 서문이 없어 책을 펴면 누구의 사적(事蹟)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발문을 간행본 『노랄수사』 맨 앞에 붙이고 ‘우(右)’자를 ‘차(此)’자로 고치고 서문으로 삼았다.⁴⁵⁾ 그리고 안방준이 편찬한 『노랄수사』에 추후 증보(增補)한 대목은 한 글자 낮게 쓰여 있다.

이병연이 『노랄수사』를 간행할 때 「목재선생유고별록」이라 하여 이귀 관련 기록들을 부록으로 합편하였다. 다음은 별록에 추가된 글이다. 갑인함사(甲寅緘辭, 광해군 6년), 행장(行狀, 최명길), 신도비명(神道碑銘, 조익), 표석음기(表石陰記, 이식), 책훈교서, 종묘배향교서, 치제문, 동궁치제문, 묘소치

43) 『延李先蹟略考』跋文. “故十餘卷先籍中에 略考抄出하여 以爲考德捷徑之資……”

44) ‘瀟’는 ‘胥’의 의미인데 ‘胥鯁之臣’이라는 말이 있다.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듣기 괴로운 직언을 하는 꼴뻘하고 충직한 신하를 뜻한다.

45) 『老辣瀟辭』. “一. 安文康公編次跋文以後無有爲之序者, 而尙今序文闕焉. 開卷未知爲何人之事蹟, 故跋文中初頭右字, 改以此字, 代以序文, 猥甚之至矣.”

제문(墓所致祭文, 숙종대왕), 성봉서원봉안문, 장소서문(章疏序文, 박세채), 삼연사청액소(三延祠請額疏), 배향각소(配享各所), 오산남문창의비문, 창 의 비 제현위차가 수록되어 있다.

공부자 탄신 2514년(1963년) 계묘년 음력 10월 상순에 대성강당 명의로 간행했다. 축자형으로 건·곤 2책으로 250질을 종족과 사우에게 반질하였다. 전후 비용으로 백미(白米) 20여 가마니가 들었다.⁴⁶⁾

또한 이병연은 가장(家藏)하고 있던 『연성충정공연보(延城忠靖公年譜)』 2권에 행장, 신도비명, 묘표, 성봉서원 배향문(盛峰書院配享文), 9세조 안분재공(安分齋公, 충정공 4남 준)이 찬한 가장(家狀)과 유사(遺事)를 부록으로 만들었다. 1965년 중추절에 발행은 공주 대성강당, 인쇄는 대전 이문사(以文社) 명의로 축쇄본(1권)을 간행하였다. 연성 이시방이 돌아가신 지 300여 년이 지났지만, 후손이 미약하여 미처 간행하지 못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종가(宗家)가 형편이 어려워 선조의 유적이 대부분 유실되었다고 이병연은 발문에서 밝히고 있다. 총 210질을 간행하여 종족과 사우에게 분질하여 오래도록 전수되도록 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송석 이병연의 생애와 편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그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겠다. 이병연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19세 때부터 부친 이원과 숙부 이석이가 간행하는 문헌편찬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았다. 부친 이원이 주도했던 『조선잡영보』, 숙부 이석이가 주도했던 『조선이학금보』 간행에 이병연이 참여함으로써 조선 시대 인물들의 가계(家系) 정보와 이를 분류, 구성하는 방식을 습

46) 1990년(경오년) 4월 이병연의 장남 惠熙가 안방준이 편저한 『노랄수사』를 그대로 영인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노랄수사』(1990년 영인본) 경우, ‘延安’, ‘蘭臯’, ‘景西’ ‘李田奚’ 장서인이 찍혀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所藏) 안방준의 문집인 『우산집(牛山集)』에도 ‘延安’, ‘蘭臯’, ‘景西’ ‘李田奚’ 장서인이 찍혀 있다.

득하였다. 『조선환여승람』의 특징인 전국적 규모이면서 군별 책자, 그리고 방대한 인물 정보를 수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부친과 숙부의 간행을 조력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 후반 『전남청금록(全南靑衿錄)』에 자극을 받아 『전선청금록(全鮮靑衿錄)』 출간을 제안하고 관여하면서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책자를 편찬하고 간행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는 1929년(36세) 1월에 『조선환여승람』 출판 허가를 받아 준비하고, 1930년(37세)에 출간을 시작하여 몇 년 만에 수많은 군 단위 지역의 방대한 분량을 성공적으로 출간했다.

『조선환여승람』의 상업적 성공은 40대 이후 이병연에게 사회·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했고, 이를 통해 선조들의 묘소를 이장하고 석물을 차례대로 세웠다. 또는 이병연은 부여 금성산에 연안이씨 시조단 건립과 함께 『부여금성단지』를 편찬했고, 대성단을 건립하고 『대성단실록』을 편찬했다. 의례(儀禮)를 치르는 공간은 시조와 선현의 추모와 존숭을 통해 종족과 유림이 결속과 유지를 다지고 화합하는 효과를 갖기 위한 곳이다. 하지만 시조단 건립시 문제로 종종 간 불화를 겪기도 하고, 공자를 모신 대성단 건립에 따른 인근 유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조단 건립지에 대한 철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고, 성현을 모시는 방식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연은 해당 지(誌)를 편찬함으로써 건립 시말 과정과 정보는 물론 예식의 순서, 참여자, 협찬자 등을 기록으로 후대에까지 남기려고 노력했다. 이는 기록 정신의 소산이다.

그리고 이병연은 선조 현양을 위해 『연리선적약고(延李先蹟略考)』, 『노랄수사(老辣隴辭)』, 『연성충정공연보(延城忠靖公年譜)』, 『사세발해유첩(四世發解遺帖)』, 『난고시집(蘭臯詩集)』과 같은 선조 관련 문헌을 꾸준히 정리하여 편찬했다. 전통시대에는 개인 또는 집안에서 필요한 책이나 문집, 족보 등을 비용 분담해 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필요한 부수만을 간행하는 한정된 출판을 하였다. 『조선환여승람』은 상업출판물이었지만, 선조를 현양하는 문헌들은 본인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종족과 유림에게 분질하는 일을 자임하였다.

또한 고령의 나이에 장성 오산사 주벽인 연평 이귀 위패의 역위(逆位)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유림들을 만나 요청하고 지극정성으로 노력했다. 이어 『호남원우록』의 위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총 56일 동안 전남 곳곳을 온갖 고생을 하며 돌아다녔다. 이병연은 그 누구보다도 문헌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유학자의 문헌들이 간행되었다. 현재적 시점에서 근현대 유학자의 삶 속에 편찬 활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는 향후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송석 이병연의 생애와 편찬 활동 속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老辣澁辭』.

『扶餘錦城壇誌』.

『大成壇實錄』.

『松石遺稿』.

『樗軒集』.

『朝鮮襄輿勝覽』.

『延李先蹟略考』.

『伊山文集』.

조원래,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허경진, 「〈조선환여승람〉에 끼워져 있었던 독자와 발행자의 편지들」, 『하버드 대학 앤칭 도서관의 한국고서들』, 웅진북스, 2003.

김만호, 「조선후기 長城 지역의 南門倡義 기억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 67, 2017.

허경진·강혜중, 『『조선환여승람(朝鮮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연구』 35, 201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The Work of a Confucian Scholar in the 20th Century as Compiler: Focusing on Songseok Lee Byung-yeon

KIM Kun woo

This paper examines the work of Songseok Lee Byung-yeon(1894-1977) as a compiler of books and documents, a twentieth-century Confucian scholar in Gongju, Chungcheongnam-do Province. Lee Byung-yeon edited and published Joseon Hwanyeoseungram(朝鮮寰輿勝覽), a vast human geography book on 129 counties in the 1930s, but even basic information on his life has not yet been reported to the academic world. Drawing on the life of Lee Byung-yeon, this paper discusses the process and backgrounds of the publication of the books he compiled: Joseon Hwanyeoseungram, Buyeo Geumseongdanji(扶餘錦城檀誌), Daesongdan Sillok, Yeonseong Chungjeonggong Yeonbo(延城忠靖公年譜), The Collected Poems of Nango(蘭阜詩集), etc.

Despite living in poverty, Lee Byung-yeon gained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by participating in the compilation of documents published by his father Lee Won and uncle Lee Seok from the age of 19. Joseon Hwanyeoseungram covered data on a national scale, dealt with each county in an individual volume, and included extensive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e from Lee's experience of assisting his father and uncle to publish documents. The success of Joseon Hwanyeoseungram had provided a stable socio-economic foundation for Lee Byung-yeon since his forties. He continued to edit and publish documents related to his ancestors, thereby enhancing the status of his forefathers and strengthening the ties of kinship.

For Confucian scholars who lived in the 20th century,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pointed to an era of crisis. They responded to the changed environment in various ways, such as compiling Confucian literature, publishing genealogies, academic research, glorifying ancestors, and preserving relics. As is well known,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has produced and distributed a large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led to the formation of new ideas and perception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in combination with a new printing culture, Confucian literature, such as genealogy and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has also been greatly expanded. Lee Byung-yeon's life and compilation work are a typical example of this change in circumstances.

Key Words : Lee Byung-yeon, Joseon Hwanyeoseungram, compilation,
confucian scholar, glorification of ancestors